



군종주보

2023년 12월 31일(제1174호)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기정 성회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하느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장소”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루신 성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오히려 고통과 시련이 더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주 불행한 가정처럼 보였지요.

먼저 경제적으로 무척 가난했습니다. 성가정의 가장인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는데, 예수님 당시 예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수라는 직업은 가난한 일용직으로, 하루에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것도 힘겨웠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가정이 성가정에 비하면 매우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재산이 부족해서 성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서 성가정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부유한 집도 많지요. 이처럼 가정의 참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재물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루신 성가정은 돈이 없어 가난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야 성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는 아무런 갈등 없이 그저 사랑만 가득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결혼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리아의 혼외 임신으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생겨 파경을 맞이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가족들 사이에 생기는 아픔을 주님의 힘으로 극복해 나아갔기에 성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 성가정일까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속을 무던히도 많이 썩였습니다. 갓난아기 시절 예수님의 목숨을 노린 헤로데를 피해, 마리아는 산 후조리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이집트까지 먼 여행길을 떠나야만 했고, 12살 때에는 말도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사흘 밤낮 동안은 예루살렘을 찾아 헤매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식은 돌아가신 부모를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기보다 먼저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치욕적으로,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성모님의 슬픔은 도저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가정을 가정생활의 모범으로 여기며 본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위해서 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뽄뽄 뭉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잘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성가정은 하느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각자의 가정을 그런 성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며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강윤(모세) 신부
태평(육군 제28보병사단) 성당 주임

자녀가 속을 썩이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변호송

집회 3,2-6.12-14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콜로 3,12-21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루카 2,22-40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한 번째 시집

신부님께서 또 다른 순교자들과 그 밖의 주목할 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어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글로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부님께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다음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면 빠뜨리지 않고 신부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신부님께 말씀드릴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새 주교님께서 오시기만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주교님을 통하여 신부님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그러우신 신부님께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부님께 청구한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 그것이 도착하면 다른 물건들을 또 청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저와 저의 불쌍한 조선 신자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을 통하여 모든 신부님들과 지극히 공경하올 대표 신부님께 간곡한 인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께 간곡한 인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스승님께, 가장 비천한 종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열두 번째 시집

예수 마리아 요셉,
소리웃에서, 1856년 9월 13일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오랫동안 소식이 격조하였습니다. 이럴수록 여러 가지 더 많은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하겠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펜을 들기만 하면 모든 생각이 달아나고 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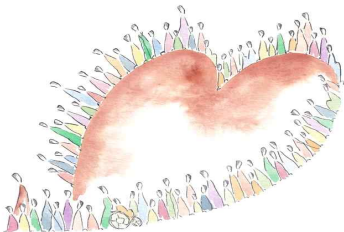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먼저 도저히 견잡을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길 일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업교회사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가족



한 식탁에 모여 앉아
밥을 나누면
그게 식구지.

한마음으로 모여
정을 나누면
그게 친구지.

그렇게
밥을 나누며,
정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싱클롬비 제단화



본 작품은 예수님의 수태 고지와 탄생, 봉헌을 차례로 표현한 제단화의 가장 오른쪽 패널로 성모님이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마주친 시메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가올 수난을 예언하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은 수난을 상징하는 흰 천에 싸여계신다.

싱클롬비 제단화 중 일부
로지에 빈 데이 바이텐
1455년경 제작
나무 패널 위 유화,
300x140cm
알테 피나코텍 뮤지엄
독일 뮌헨

아기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받치고 있는 시메온의 손과 이를 바라보고 있는 안나, 그리고 성모님의 표정과 작품을 아우르는 경건함이 인상적이다. 봉헌이 행해지는 곳은 세례가 행해지던 세례당이지만 왼쪽은 성당 내부인 반면, 오른쪽 뒤로 보면 외부와 연결된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고 왼쪽 성당 열린 문 근처에 다양한 인물들이 보인다.

김은혜(앨리스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생기장 복음: 길버트 유병을 신부

◆ 교구장 동정

- 시무식/미사

때·곳: 1월 2일(화) 10:00, 군중교구청 1층 소성당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화해와 자유를 위한 교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